

한국의 건축가 12 - 김인호(2)

Korean Architect, Kim In-Ho

김인호사단의 계보 및 활동

박정우 / 계명전문대학 건축과 교수
by Park Jung-Woo

◇ 연재목차 ◇

(계재월)

1. 이희태 (9503~9505)
2. 김정수 (9506~9508)
3. 김수근 (9509~9512)
4. 정인국 (9601~9605)
5. 박길룡 (9607~9608)
6. 박동진 (9609)
7. 강 윤 (9610~9612)
8. 이천승 (9701~9702)
9. 김중업 (9703~9707)
10. 배기형 (9710~9801)
11. 김순하 (9802~9803)
12. 김인호 (9804~9806)

1. 김인호, 그 짧은 삶에 대한 기록
2. 김인호사단의 계보 및 활동
3. 김인호의 작품세계

김인호가 그의 스승 정경운과 작품활동면에서 결별하게 되는 시기는 이미, 1966년 정경운이 청구대학을 떠나면서 부터인 것으로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그보다 앞선 1965년, 건축사시험거부사건이 있었을 때, 정경운은 무시힘으로 면허를 취득할 수 있었고, 김인호는 시험을 치뤄야 했던 시점부터 이미 신·구의 갈등과 대립이 형성되어 있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어쨌든 김인호는 1966년부터 최성덕과 함께 동방건축설계연구소를 개소한 이래, 1969년 면허취득 후 <대아건축설계연구소>로 개명하고 1988년 그가 서거한 시점까지 22년 이상을 독자적으로 활동하면서 대구건축계의 수많은 인재들을 배출하였다.

<표1>은 그동안 김인호의 계보로 알려져 있는 멤버들을 입사한 시기와 졸업년도에 따라, 임의로 5개의 그룹으로 분류하여 정리해 본 것이다. 그러나 입사나 퇴사의 시기가 서로 다르고 군문제 등으로 인하여 이러한 분류에 선후배간의 정확한 위계는 따질 수도 없고, 또한 그 의미도 크지 않음을 밝혀 두고자 한다. 가능한 당시 근무한 사람들의 기억과 증언을 토대로 정리하였고, 청구대학 졸업자는 이를 뒤에 졸업년도를 표기하여 두었다. 되도록 완벽성을 기하고자 노력하였으나 다소의 미흡한 점이 보이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독자들의 해량있으시길 바랄 뿐이다.

김인호사단, 대구건축을 이끌다

김인호는 그의 대담하고 창의적인 디자인감각으로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소화해내므로 그의 제자들에게 누구보다도 일찍, 폭넓고 다양한 건축세계를 체득케 하였다. 또한 문제로 접근하는 수법이나 탐구정신, 그리고 창의적 사고가 길러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토론하고 독서하는 자세를 몸소 보여줌으로써 산교육을 실천하였다. 다음은 일찍부터 김인호사단에 흡수되어 성실한 수련을 거쳐, 오늘에 이르러서는 나름의 건축세계를 구축하고 있는 김인호 멤버들의 면면들을 간략히 소개하므로 김인호 계보의 역사적 맥락과 그들의 대구건축에의 역할의 관계성을 일별하고자 한다.

합동건축 - 김인호의 건축설계연구소가 배출한 수제자는 권태식이

다. 그는 1969년 일련의 실내체육관 설계를 마무리 지으며 퇴사하였고 그 이듬해, 윤태식, 류문대, 권영환 등과 함께 <합동건축설계사무소>를 개소한 이래, 29년째 그들과 동고동락하고 있다. 그야말로, 전국적으로도 보기 드문 대구의 최장수 합동사무소이다.

그들의 1970년대 작품으로는 상공회의소회관, 세관청사, 대구시민운동장, 충북체육관, 대구동부소방서, 대구청소년회관, 경북대 공대3호관, 대구섬유회관, 대구여고, 경상북도지사공관 등이 있다. 그 중에서도 글라스 커튼월의 고층부와 필로티의 저층부로 구성된 상공회의소회관은 초창기 고층사무소건축의 전형이 되었고, 동부소방서는 동대구역 앞 사거리의 모서리부지에 저층부의 부드러운 라운드와 노출콘크리트 마무리의 질감처리가 돋보이고 프로포션면에서도 성공적인 작품으로 평가되고 있다.

1980년대는 삼일빌딩의 이미지를 닮은 경쾌한 외관의 미도백화점 빌딩(최초로 로터리식 기계주차방식 도입) 외에, 대구사이클경기장, 영남공업전문대학 본관 및 학생회관, 경북대 중앙도서관, 시립두류도서관, 영희유치원, 대구상고, 뉴영남호텔, 동산호텔, 광외과의원, 현대병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문제작들을 내어 놓았다.

1990년대를 전후한 작품들에서는 급변하는 시대에 부응하려는 노력들이 작품 곳곳에서 보여지는데, 대구타워, 대백프라자, 도시개발공사사옥, 원도시와의 합작으로 현실설계에 당선한 대구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등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성건축 - 이 성은 김인호 문하에서 가장 오래(19년간) 그를 보좌하며 성실하게 <대아>를 지켜온 산 증인으로, 1986년 다소 뒤늦게 독립하여 성건축을 개소하였다. 그는 <대아>시절, 아세아신경외과를 위시하여 대구시 의사회관, 대구실내스포츠센터, 남서울 대운동장계획안(잠실야구장), 매일신문사옥, 동아쇼핑, 대구시 종합복지관, 구미시청사, 평리성당, 경북대 다목적강당 등을 설계하였다. 독립한후 그는 올림픽기념관, 대구시민체육관, 경북대 전자공학관, 경북대 대학원 등 다수의 작품을 발표했다.

세명건축 - 김화자는 대구 최초의 여성건축가로서, 원만하고 폭넓은 인간관계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일꾼을 자처하는, 시들줄 모르는 열정의 소유자로 알려져 있다. 그녀는 1968년 광병원원장 주택(최근 1996년까지, 건들바위 무속박물관으로 사용)설계를 시작으로 성 누가의원, 세강병원, 태남빌딩,

<표1> 김인호사단의 계보 (1966-1988)

권태식(權泰植)/ 1966졸-대구/ 주)합동건축 대표
/ 한국건축가협회 제11대 대구지회장

이현동(李弦東)/ 1966졸-작고
여옥동(呂域東)/ 1964졸-대구/ 세원건축 대표
허주열(許主烈)/ 1964졸-서울/ 주)영지건축 대표

황 설(黃 榭)/ 1964졸-전 국회의원
김정강(金正剛)/ 1964졸-뉴질랜드
윤삼균(尹三均)/ 1966졸-워싱턴D.C

이 성(李 盛)/ 1967졸-대구/ 성건축 대표
/ 한국건축가협회 제13대 대구지회장

김화자(金花子)/ 1967졸-대구/ 세명건축 대표
김성현(金盛煥)/ 1968졸-대구/ 조형건축 대표
이영기(李英基)/ 1967졸-경주/ 동아건축 대표
/ 경북건축사회 회장

안원달 / 미확인-대구/ 개인사업
문귀등(文貴登)/ 미확인-경기 용인/ 수림건축
이장우(李長雨)/ 1968졸-대구/ (주)청구 전문
김무권(金武權)/ 1969졸-대구/ 주)현대건축 대표

/ 현, 한국건축가협회 제15대 대구지회장

김충삼(金忠三)/ 1967졸-대구/ 삼협건축 대표
서정남(徐正男)/ 1969졸-대구/ 정우건축 대표
구성일(具誠一)/ 1970졸-대구/ 현대연합건축 대표
김수웅(金秀雄)/ 1968졸-서울/ 조달청 과장
장영근(張永坤)/ 1969졸-대구/ 공영건설 전문
서보광(徐輔光)/ 1970졸-대구/ 동성건축 대표

박영팔(朴英八)/ 1972졸-대구/ 개인사업
김봉근/ 연세대졸-캐나다
정광흠/ 미확인-개인사업

윤상국(尹 國)/ 1973졸-대구/ 대아건축 전문
박정수(朴正壽)/ 1973졸-대구/ 대아건축 대표
/ 대유주택 대표

이병락/ 미확인-서울/
신무홍(申戊弘)/ 1971졸-대구/ 동국무역
유병순/ 미확인-대구/ 건축업
임성식(林聖植)/ 1973졸-홍일건설 전문
강영균(姜榮均)/ 고려대졸-대구/ 반석건축 대표
한운길(韓運吉)/ 1976졸-대구/ 한실건축 대표
최상용(崔相龍)/ 미확인-대구/ 예림건축 대표
신중학(申鍾學)/ 1975졸-대구/ 경일대학교 교수
장석하(張錫河)/ 1975졸-대구/ 경일대학교 교수
박 건(朴 健)/ 미확인-부산/ G.A건축사사무소 대표
배창복(裴昌福)/ 계명전문-대구/ 대아건축
김상근/ 대구공고-대구/ 실내디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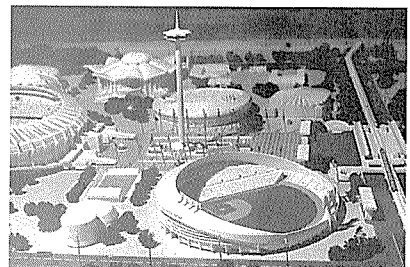
고려빌딩, 계산성당 사제관 등의 작품이 있고, 1973년 대구 최초의 삼덕동 태양열주택에 이어 1983년 남산솔라맨션은 당시 에너지 절약차원의 공동주택의 모델로서 화제를 모았고, 대구시 건축상을 수상한 1996년의 우방 하이니스는 고급형 맨션의 새로운 모



대구상공회의소회관(1971)



대백프라자(1988)



잠실야구장 모형사진(1977)

델을 제시하였다.

조형건축 - 일찍부터 김인호로부터 그의 능숙한 그림솜씨 덕택에 많은 사랑을 받았던 김성환은 군입대로 인해 <대 이>를 떠났다. 그는 1973년 협동건축의 멤버가 되어 최병달, 우종수 등과 함께 활동하였다. 그는 1983년 반월당 사거리에 위치한 덕산빌딩에서 전망용 엘리베이터를 처음으로 등장시켰고, 1986년 본격적인 리조트호텔의 개념을 도입한 대구파크호텔을 필두로, 아리아나호텔, 크리스탈호텔, 크라운관광호텔 등 일련의 호텔시리즈를 연속해서 설계하기도 했다. 김성환은 1991년 새로이 조형건축설계사무소를 개소했다.

현대건축 - 김무권은 1976년, 존경하던 스승 김인호를 떠나 이종우, 박몽룡, 권국현, 구성일 등과 함께 <현대종합건축사사무소>를 열었다. 바로 그해에 그는 뛰어난 조형감각이 돋보이는 앞산공원의 낙동강승전기념관을 위시하여, 건축사회관, 계명대학교 중앙도서관, 계명대학교 의양관 현상설계 등에 당선되어 그의 완벽한 기능성에 바탕을 둔 정직한 심미안을 보여주고 있다.

그 외에도 경일투자빌딩, 계명대학교 자연관과 체육관을 위시한 성서 캠퍼스 관련시설 대부분, 영남대학교 제2 화학동과 미술대학 등 상당수의 교육연구시설들을 설계하였고, 불규칙한 긴 대지에 종탑을 중심으로 본당과 사제관을 연결시킨 신암성당외에도 동명성당, 요한 바오르2세의 집, 예수 성심수녀원 등 수작으로 손꼽히는 천주교회건축물들, 그리고 대구가톨릭대학 병원 등의 병,의원건축, 대구시 건축상을 수상한 대명빌라 등과 같은 주거건축물 등 무수히 많다.

그는 그의 종교적 성향 때문인지, 유난히 적벽돌 쓰기를 좋아하고 앉차를 즐겨, 주위로부터 다전(茶憵)이라는 별호를 얻기도 했다. 그는 또 한국건축가협회 대구지회에서 오랫동안 헌신적으로 일해오다, 1997년부터 제15대 지회장직을 맡고 있다.

삼협건축 - 김충삼은 경주 화랑의 집의 구조설계이후, 대구시민회관 현상설계에 참여한다. 그는 설계년도인 1972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객석수를 1,972석으로 맞추었으나, 실제로 그렇게 시공되지는 못하였고 현재 1,654석이다. 대구시민회관 실시설계를 끝낸 1973년, 향시 자신의 성실함을 믿어준 김인호의 만류가 있었으나 퇴사하여 삼협건축설계연구소를 개소하

였다. 그는 김인호의 인간론에 영향받은 바가 컸고, 과욕을 모르는 소박한 성품을 지녔다. 금자탑독서실의 다수의 작품이 있다.

정우건축 - 서정남은 1969년 입사이후 일반 및 현상설계에도 여러번 참여하였으나, 주로 불국사, 황룡사지 등과 같은 전통건축의 복원 및 설계에 관여하였다. 그는 대학졸업작품을 불국사복원계획안으로 발표할 정도로, 전통건축분야의 설계에 일찍부터 길을 잡았고, 책임감 넘치고 성실하며, 성실한 만큼 자부심도 강한 건축가이다. 그는 경주 화랑의 집이나, 영남제일문과 같은 전통건축 외에도 명성예식장, 성당동성당과 같은 수작들이 상당수 있다.

동성건축 - 서보광은 드물게도 박사학위(영남대)를 수여한 건축사다. 그의 기민하고 적극적인 성품은 그의 작품에서 옹의주도하고 치밀함으로 나타난다.

그의 대표작으로는 중정의 아트리움공간을 도입하여 수도자의 폐쇄적인 공적공간을 연출한 포교 성 베네딕도 수녀원을 위시한, 트리피스티인 수녀원, 평화의 모후원, 성 바오르 안나의 집, 지산 천주교회 등 다수의 종교건축들과, 기능성과 심메트리한 외관이 돋보이는 영남대학교 전문대학원, 영남대 제2사회관, 김천시청사 등과 청소년 수련마을 보람원의 다수의 작품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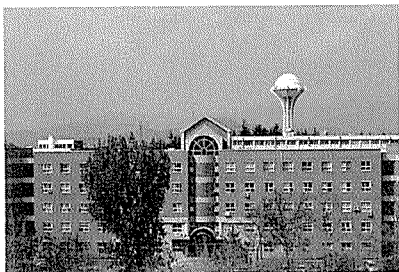
그는 1976년 동성건축을 세운 지 20년이 되는 해를 기념으로 1996년, <라스메니나스의 지형학>이란 이름의 작품집을 내기도 했다.

반석건축 - 강영균은 김인호건축의 후반부 10년간, 많은 역할을 한 인물이다. 그는 국제호텔, 명성예식장, 동아쇼핑센터, 구미시청사, 대구시문화예술회관, 대구 두류실내수영장 등의 프로젝트에 참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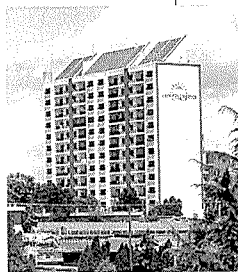
그의 작품으로는 가든하와이, 자연스포츠허브, 성서공단 종합전시관, 진보빌라 등이 있다.

후당 김인호 교수 기념사업회

김인호의 서거 1주기가 되던 1989년 7월 28일 정식 발족된 기념사업회는 교육자로서, 학자로서, 건축가로서, 또 불자로서의 그가 남긴 수많은 업적들을 오래도록 되새기기 위하여, 또한 그의 정신과 사상이 후학들의 영원한 귀감으로 남게 하기 위하여 몇가지 기념사업의 추진을 준비하여 왔다. 그 중 묘비



경북대학교 대학원(1993)



남산솔라맨션(1983)



우방 하이니스(1996)



덕산빌딩(1983)

건립과 건축작품집 발간은 여러 운영위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1991년 7월 27일, 묘비제막식과 작품집 헌정식을 무사히 치뤘다. 이로 일단락 지을 수 있었다.

그동안 기념사업회 회장은 권태식, 부회장에는 김기철, 문 곤, 이종우, 장기웅, 황 설, 총무에는 김무권, 김충삼, 서정남, 이 성, 윤상국, 고문에는 노영하, 박병기, 서경보, 오세도, 정경운, 김현산, 그리고 추진위원은 강성욱외 48인으로 추진하여 왔다.

한편 이들은 고인에 대한 깊은 추모의 뜻과 아울러, 김인호의 건축정신의 대를 잇기 위한 사업으로써 후당건축상 제정을 준비하여 왔다. 금년 7월이면 10주기가 된다. 기념사업회의 운영위원들은 그동안의 모금액이 수천만원에 이르렀고, 10주기에 맞추어 행사를 치를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막바지 작업에 한창 열을 올리고 있다.

후당건축상을 계기로 한국건축가협회 대구지회는 건축활동을 통하여 특별한 성취, 또는 현저한 업적이 있었음을 기리기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가 기증하는 기금에 의하여 운영되는 특별상제도를 마련하여 그 첫번째 대상으로 <후당건축상>을 채택하였고, 그 첫 시상은 1998년 가을, 제18회 대구건축대전 시상일에 함께 치르기로 정하였다.

그들의 증언

권태식/1966-1969/ 합동건축 대표 - 대학시절, 선생에 대한 인상은 늘 우아한 성품의 소유자였고, 선생과 디자인에 대해 깊이있는 접촉은 못하였으나 설계시간에는 실무적인 설계에 대하여 자주 대화를 나누었던 기억이 있다. 나는 중앙건축(이성해씨 운영)에서 2년간 설계실무를 하던 중, 1966년 5월 선생의 부르심을 받고 작고한 이현동과 만경관 근처의 2층건물에서 직접 설계를 지도받았다. 그 몇달후 선생은 복성로에 조그만 아뜨리엘을 꾸며 이전하므로 그 때부터 동방건축설계연구소가 시작된 것이다.

1966년 당시 경북실내체육관의 현상설계경기가 있어 선생께서 손수 건물의 윤곽과 형태를 디자인하여 그것을 토대로, 나와 이현동이 체육관의 기능과 형태를 다듬었고, 지금은 미국 워싱턴D.C에서 건축활동중인 윤삼균이 당시 목공예소를 운

영중에 있었기에 목제모형을 그가 만들었다.

당시 선생이 스케치한 페이퍼가 남겨지지 않아 못내 아쉬움이 더하지만, 지금의 체육관 형태를 거의 완벽하게 스케치한 것으로 기억한다. 늘 그랬듯이 선생의 스케치는 건축법규를 무시한 것이었지만, 전통적이고 한국적인 멋을 담으려는 시도는 한결같았다. 경북체육관의 요청으로 당시 서울대 김희춘교수와 한양대 함성권교수를 청계천 김교수 아뜨리에에서 만나, 체육관의 설계와 구조에 대한 그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에서, 그러한 디자인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대구의 풍토가 부럽다는 김교수의 말을 듣고는 가슴 뿌듯함을 느꼈던 기억이 있다.

1967년경, 경북실내체육관 기공식에 참석하였던 태종학 강원지사의 요청으로 강원도 춘천실내체육관을 설계하게 되었다. 연구실의 일손이 부족하여 원주에서 근무하던 여육동을 합류시켜 그 프로젝트를 맡게 하였다. 춘천 실내체육관 팔각형의 형태는 역시 선생의 한국의 전통적인 멋을 한껏 풍기는 디자인이었다. 경북실내체육관과는 거리가 먼, 또 하나의 체육관을 탄생시킨 것이다. 이것은 당시 허주열이 감리를 맡아 심혈을 기울였던 건축이기도 하다.

경북체육관이 두 개의 아치를 3한지의 콘크리트 박스(대나무구조처럼 속이 빈 구조)구조로 하고 지붕트러스도 3한지로 처리하였는데, 춘천체육관 역시 지붕은 중앙부에 링을 두어 건물 외주부 기둥에 한지를 설치하여 3한지 구조시스템을 채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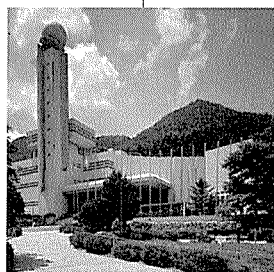
1968년에는 대전체육관의 요청으로 대전 충무실내체육관을 설계하게 되었는데, 평면은 원형으로 구상하고 지붕은 철골 첼로 처리하여, 또다른 체육관건축을 탄생시켰다. 역시 이 체육관도 원형이긴 하지만 곳곳에 한국적 분위기를 빼놓지 않아 선생의 전통건축에서 한국적 멋을 찾으려는 정신을 읽을 수 있었다.

건축을 배우기 전에 인간이 되어야 한다는 지론으로 선생도 많은 책을 섭렵하였지만, 제자들에게도 건축외의 많은 책들을 권하였다. 술을 좋아하였지만 술보다는 술자리에서 좋은 대화를 이끌기를 즐겼던 분으로 회고된다. 제자를 사랑하고 아껴주는 분이었지만, 돈은 모르는 분이라 제자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지는 못하고 마음만 아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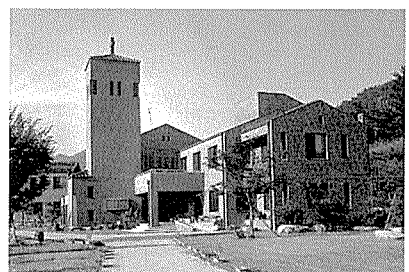
선생과의 만남은 체육관 설계로 시작하여 체육관



대구파크호텔(1986)



낙동강승전기념관(1976)



동명성당(1987)

설계로 끝나 버렸다. 1968년 춘천실내체육관이 완성되고, 1969년 경북실내체육관이 완성된 후 대전충무체육관이 완성되므로 일련의 실내체육관 설계의 장은 마감되었다. 이러한 선생과의 만남으로 후일 나는 대구종합경기장 육상경기장과 야구장, 자전거경기장, 궁도장, 사격장, 두류경기장 야구장, 안동종합경기장, 충북 실내체육관, 대구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설계 등으로 그 맥을 이어 오고 있다.-(후략)

이 성/1967-1986/ 성건축 대표 - 1967년 2월 28일 졸업식날이었다. 4학년 2학기부터 취업이 되었거나 대학원 진학을 택한 학우들도 있었지만, 나는 그때까지 망설이다가 졸업식을 맞게 되었다. 졸업식을 마치고 선생님께 인사를 드리러 학과 사무실에 들어서 다짜고짜 "선생님, 저는 이제 어떻게 할까요?" 했더니, 오후에 연구실(동방건축설계연구소)로 나오라고만 말했다.

설레이는 마음으로 연구실에 찾아가니 연구실의 첫인상은 빼겨거리는 목조 2층 건물에 낡은 제도판과 집기, 청사진도면들이 어지러이 널린 어두운 실내분위기가 내심 실망스럽기도 했다. 선생님은 낮익은 선배들께 인사를 시킨 후, 청사진도면(동성로 공외과 신축공사, 시공자는 진영건설)을 주시면서, 내일부터 이 현장에 공사감리를 맡아하라 하였다.

이렇게 시작한 건축입문은 차츰 사무실 분위기에 익숙해지면서 선배들의 따스한 조언과 함께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지낼 수 있었고, 청구대학 붕괴사고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아무도 흠어지지 않았고, 오로지 선생님을 믿고 공지를 가지고 즐거운 마음으로 근무를 하였다.

이미 많은 것을 배운 선배들이 선생님을 떠나 독립함에 따라 나와 선생님과 대화시간이 길어졌고, 그 때 나는 선생님의 철학과 건축세계에 대하여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다. 선생님은 작품에 대하여 많은 애착과 욕심을 가지고 있었다. 사무실에서 뿐만 아니라, 바깥에서도 잠시라도 한가한 시간이 있으면 진행 중인 작품구상에 몰두하였고, 심지어는 스케치나 메모를 담배갑에 하고는 우리에게 건네주며 작품에 반영케 하였다. 외지로 출장을 함께 갈 때는 모든 사물들을 건축과 연관지어 말했고, 그것을 작품의 세계로 끌어 들였다.-(후략)

김화자/1966-1970/세명건축 대표 - 건축을 전공한 지 엇그제 같은데 벌써 30년이란 세월이 훌쩍 지났다. 1966년 청구대학 3학년 겨울방학이었다. 나는 당시 학과장이며,

지도교수였던 김인호선생님의 건축설계연구소에서 실습생 생활을 시작했다. 60년대는 설계사무소라고는 고작해야 대학교수 몇몇분과 건축사들의 연구소가 몇군데 있을 뿐이었다. 지금 생각하면 곧 쓰러질 것 같은 목조건물이었는데, 그 때 그 연구소가 정말 신기하고 멋진 사무실이라 여겨졌었다. 선배님들 또한 훌륭하고 성실하여 정말 신바람나게 일했고, 열심히 배웠던 기억이 새롭다. 실습생시절, 서투른 연탄갈기며, 60자루의 연필깎던 일, T자와 삼각자를 비누로 씻고 닦던 일을 요즘에 생각해 보면 격세지감을 느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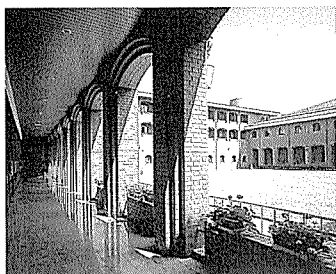
경사가 급한 목조 2층의 좁은 계단을 빼겨거리며 올라가면, 바닥은 시멘트먼지가 훑훑 날리고, 스프레트지붕이라 겨울엔 유난히 춥고, 여름엔 너무 더웠었다. 더구나 건물 서측엔 유명한 동해반점이 붙어 있어, 각종 요리냄새와 주방열기가 등천하여 무더위에도 창을 제대로 열어본 기억이 없다. 그래도 모두 불평 불만없이 선생님의 밝고 인자한 품성 때문에 힘든 줄도 모르고, 열평을 넘을까 말까한 설계실에 다닥다닥 붙여놓은 제도판에서 이른 아침부터 밤 12시, 통행금지시간까지 정말 열심히 일했다.

경북실내체육관 현상설계를 준비할 때, 선생님의 기발한 아이디어로 투시도를, 지금은 유명한 조각가이시고 영남대 미술대학 교수인, 정은기선생님께 부탁하여 유화로 그렸다. 우리는 오구에 먹을 짝을 체육관도면을 그리다가 먹물이 퍼져나와 버리기를 수십번씩 하였다. 그런 고생 끝에 우리작품이 당선되었을 때, 선생님은 우리 모두에게 당선 영광을 돌리고 제자들과 술자리를 함께하며 기쁨을 나누었다. -(중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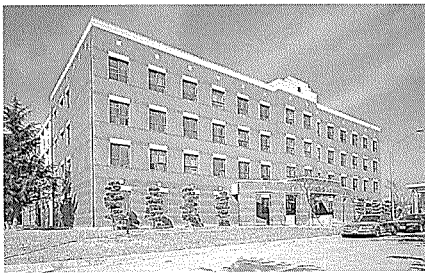
지금은 모두가 이 지역의 명망높은 건축가로, 또 건설회사 사장들로 성장했지만, 이 모두가 선생님의 가르침과 또 무언의 행동으로 몸소 실천해 보여주던 단합과 성실, 인내, 그리고 선후배간의 두터운 사랑과 신뢰 덕분이었다.

김성환/1966-1969/조형건축 대표 - <동방건축설계연구소는 1968년경, 북성로에서 대봉동 달성제사(현, 달성맨션 자리)공장이 있었던 공장 빈건물에 그 일대의 단지계획을 위해 이전하였다가 계획이 무산되면서 1969년 누비(루비)다방 4층으로 이전하여 대아건축연구소로 개소하게 되었다고 증언함>

선생님과 첫만남은 내가 대학 2학년 때, 문화동 캠퍼스(현, 대우호텔신축 현장)에서 졸업작품 전시를 준비하면



포교 성 배네덕도 수녀원(1982)



영남대학교 제2사회관(1993)



자연(현, 동아)스포츠센터

서였다. 2학년으로는 유일하게 졸업전에 출품하였던 내 작품을 보고는 선배들 투시도손질을 부탁해 그날 밤을 꼬박 세우며 패널작업을 도왔던 것이 인연이 되어, 그 길로 주간에서 야간으로 수업을 옮겨 받고 복성로 선생님의 사무실에 입사하게 되는 영광을 얻었다. 그 당시 설계사무실에 취업한다는 것은 졸업생중 한, 두명이 고작이었으므로 그 때의 환희를 잊을 수 없다.

당시는 워낙 큰 프로젝트가 많아 입사한 지 일년도 채 안되어, 사무실 막내였던 나에게도 명성사진관사옥(현, 한일극장 건너편 4층건물)을 계획서부터 본설계까지 만져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중략)-

일년내내 밤 열한시가 퇴근시간이었지만, 조금치의 피곤함이나 불만이 없었던 것은 사무실 바로 뒷편 향촌동 맥주집으로 자리를 옮겨 건축가의 길과 인간됨의 강론을 듣는 즐거움 때문이었으리라.

무엇보다 잊을 수 없는 일은 달성공원재개발 현상설계공모 때의 일이다(당선작은 없었고 선생님만이 최고상을 받음). 선생님사무실에 적을 두고 있던 내게 임시 휴직해 개인자격으로 현상공모에 출품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고, 그 일로 인해 서먹해진 나를 사랑으로 덮어주고 다시 받아줘서 오늘의 나를 있게 해 준 선생님의 넓은 도량에 새삼 고개를 숙이게 된다.

-(후략)

김무권/1966-1976/현대건축 대표 - 내가 선생님과 처음 만나게 된 것은 1966년 대학 2학년 여름방학때 경북 실내체육관 현상공모팀에 참여하면서였다.

당시 청구대학 본 캠퍼스는 효목동에 있었고, 야간부는 문화동교사를 사용했다. 저녁 5시 선생님께서 야간부 강의를 하러 문화동으로 갈 때, 나는 선생님 가방을 들고 강의를 받으러 갔다. 그 가방이 어쩌나 무겁던지 하루는 살짝 열어 보았더니, 일어로 된 르 꼬르뷔제, 라이트 등 당시 건축가들의 작품집이 가득 들어 있었다. 강의가 끝나고 나면 나는 또 선생님 가방을 복성로 사무실에 갖다두어야 했다. 수업을 마치고 밤 9-10시경에 빼격거리는 사무실 목조계단을 올라가면, 선배들에게 잡혀 저녁식사도 못한 채 늦게까지 일하곤 했다. -(중략)-

그 무렵에 경북실내체육관 실시설계, 달성공원 기본계획 현상공모와 공사중 붕괴된 청구대학 본관 실시설계 등이 이루어졌다.

제대후, 중구 전동 대동별관 8층시절에 다시 선생님밑에서 대구시민회관 현상설계 및 실시설계, KBS중앙방송국 현상설계, 대구스포츠클럽 실시설계, 경주화랑교육원 실시설계 등을 하였으며, 특히 경주 미추왕릉(155호 고분)복원설계와 불국사 경내 조경설계시, 당시 조경에 관한 마땅한 책자 하나 구해보기 힘든 시절이었으므로 식물원을 이리저리 찾아다니며 정원수 식생에 관한 공부를 힘들게 했던 기억도 있다. 언젠가 팔공산을 함께 오르다 선생님께서 말씀했다. 가까이의 이름모를 잡초서부터 먼산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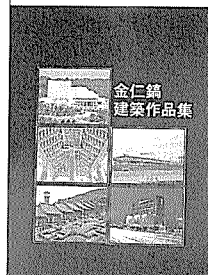
암절벽에 이르기까지 자연의 그 모든 것이 조물주의 완벽한 조경작품이 아니겠는가라고.-(중략)-

선생님의 곁을 떠난 뒤에도 멀지 않은 곳에 사무실을 얻었던 관계로 자주 찾아 뵙고 구수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곤 하였다. 특히 대구문화예술회관 현상설계를 준비할 때에는 선생님과 서로 작품구상을 공개하면서 여러번 술자리를 함께 했지만, 선생님은 국세청 뒷골목 소주집에서조차 주대계산을 허락지 않아 제자된 도리를 한번도 하지 못한 것이 지금껏 서운함으로 남아있다.

김충삼/1968-1973/삼협건축 대표 - 내가 당시 선생님의 동성로 사무실에 입사할 때는 4년간의 설계경력을 쌓은 상태였다. 내게 처음 맡겨진 설계는 청구대학 학장을 지냈던 최해청 전 학장의 자택이었다. 신천동 높은 산자락, 신천이 훤히 내려다 보이는 전망좋은 부지였는데 선생님의 지도를 받아 완성하였던 기억이 새롭다. 비록 작은 작품이었지만, 선생님과 건축주 최박사, 당시 처해 있는 두분의 관계는 술한 역사의 뒤안길에서 대학의 교주가 바뀌는 등, 그런 시절이었기에 선생님으로서 더욱 애착을 보인 것으로 기억된다.

1971년, 경주 화랑의 집 설계당시 나는 구조를 담당하였는데, 몇 해전 청구대학 붕괴사건의 영향으로 구조에 대한 선생의 관심은 대단하였다. 한번은 화랑의 집, 추녀가 구조상 불합리하다는 연락을 받고는 나에게 다시한번 구조검토를 해보라고 하기에 재차 검토해본 결과, 전혀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했다. 선생님은 직접 경주 현장에 내려가 시공자와 시행청 담당과장에게 근거없는 이야기를 함부로 하지말라고 노발대발한 기억은 지금도 생생하다.

1972년 대구시민회관 전국현상공모전에 참가하면서 선생님께서 말씀하길, 작가는 신념과 자신을 가지고 혼이 깃든 걸작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노력한 만큼 순수한 자기 작품을 만들 수 있다고 하였다. 가끔씩 선생님은 건축교재 하나없이 공부했던 초창기 건축교육의 어려운 환경에 견뎌온 우리지만, 그래도 항상 노력하고 공부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했다. 선생님과 함께 최선을 다한 작품이 당선되어 다같이 기뻐하던 축하연에서, 언젠가는 선생님처럼 훌륭한 작가로서의 길을 가겠다고 다짐하면서, 1년여에 걸친 설계를 완성하고 정말 좋은 것을 배울 수 있었음에 지금도 무한한 긍지를 느낀다.



김인호 건축작품집 표지(1991)



김인호교수 기념사업회 임원회의(1998. 2. 16)

언젠가 술자리에서 인간이 태어나면 산다는 자체가 죄악이니, 생을 살아가면서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업소멸(業報消滅)의 기회로 여기고, 후회없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고 말했다.-(후략)

서보광/ 1973-1975/동성건축 대표 - 평소 모든 일에 스케일이 크고 다정했고, 자주 홀로 술을 들며 고뇌하던 선생님의 인간적인 모습이 가장 오래 내 가슴속에 새겨져 있다.-(중략)-

선생님과는 짧은 만남이었지만 나의 생애와 작품 활동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인격을 갖춘, 그야말로 인간적인 사람만이 훌륭한 작품을 남길 수 있다"고 한 말씀이 아직도 나의 채찍이 되고 있다.

윤상국/ 1976-1988/현, 대아건축 전무 - 1982년 현상설계 당선작, 대구종합문화예술회관과 관계하여 몇 마디 하고자 한다. 다목적 공연장과 미술전시장으로 구성된 예술회관을 한국적인 디자인 요소와 전통공간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가 선생님의 주요 화두였다.

합각지붕을 형상화한 세종문화회관의 이유가 되지 않게끔 우리의 공간과 전통의 형태를 현대화하는 것이 문제의 관건이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숫자 3을 사용하여 정삼각형 그리드에 한변이 6m인 벌집모양의 6각형을 기본공간으로 하여 변화시켜 나가면서 아리랑곡선, 갑사고깔 등 전통디자인을 요소화하였다.

예술회관 앞의 성당못 조성 기본계획은 예술회관의 축을 같이 하며, 봉래(蓬萊), 영주(瀛洲), 방장(方丈)의 삼신산을 못 한가운데 두고, 못의 형태를 자연스런 곡선으로 하고, 오솔길을 만들고, 향토의 고유수종을 식재하여 예술문화회관과 조화롭게 하였는데, 실시공사를 하면서 건물과 축이 흐트러진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강영균/1976-1986/반석건축 대표 - 선생님께서는 작품을 계획할 때는 "늘 작은 부분에 치중하다보면 큰 것을 놓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작은 것을 소홀히 해서도 안된다"고 강조해 전체와 부분의 조화로운 중용지도를 가르쳐 주었다.-(중략)-

자연적인 선, 인체의 선, 한국적인 선 찾기를 좋아하였고, 프로포션을 중시해 눈에 보기 좋고 자연스러운 것이 구조적, 경제적, 미적인 것이기도 하며, 건축외적인 것에 대한 교양공부와 독서를 권하였다.-(후략)

신종학/ 1976-1978/경일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 후당 김인호 선생님을 처음 뵈는 것은 1976년 2월로 대구건축이 한층 도약하기 위해서는 설계사무소가 합동이 되어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고 외치던 시기였다. 대학을 졸업한 지 1년이 조금 지나 나는 유병순선배의 추천으로 대아건축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 때 나의 주요업무는 구조설계고 일반설계는

거들어 주는 정도였는데, 선배들이 그동안 일해온 작품들을 보면서 나의 부족함에 많은 자극을 받았고, 선생님께서도 자상하게 용기를 불러 넣어 주었다. 선생님은 내가 작성한 도면들을 언제나 세심하고 자상하게 검토하여 주었고, 밤늦은 시간에도 사무실에 들러 인생에 대한 조언과 충고의 말씀을 잊지 않았다. 그 중 기억나는 하나는 "구조설계자는 항상 디자이너와 함께 하여야 하고, 과감한 디자인 수법을 소화할 수 있는 기술자가 되어야 한다"고 한 말씀이다.

1978년 3월에 사무소를 떠나, 당시 경북공업전문학교 건축과에 부임하여 교육의 길로 들어서면서 선생님을 뵈기회는 적어졌지만, 선생님께서는 나에게 건축구조에 관한 의논거리가 있으면 항상 사무실로 불러 서로 많은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그러나 어떤 때는 술자리에서 오래오래 기억에 남을 사랑의 따귀를 아끼지 않으면서, 이 한 대가 아무에게나 주는 손장난이 아니라며 만면에 미소짓던 모습이 아직도 눈앞에 선하다.-(후략)

장석하/1977-1983/경일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 1977년 군을 제대하고 곧바로 공평동에 있던 대아건축에 입사하였고, 그 몇 달뒤에 받은 교통비조의 월급은 2만원이었는데, 첫 월급치고는 많이 받은 것이라던 선배들의 말이 생각난다.-(중략)-

선생님은 자상하고 포용력이 있는 가운데서도 엄격함이나 카리스마적인 모습으로 우리의 신뢰감을 끌어내기도 하였다. 78,9년쯤의 연말에는 월급을 받지 못하고 회식으로 송년회를 대신한 적이 있었는데, 그날 이 성선배님과 함께 선생님이 주는 소주한잔을 받으며 그 유명한 '사랑의 따귀'를 맞았던 기억이 난다.-(중략)-

하지만 계명대학교 도서관 현상설계, 구미시청사 현상설계, 충훈탑 현상설계 등 3개의 현상설계를 동시에 수행할 만큼, 일에 대한 욕심이 대단한 분이였다.-(중략)-

선생님은 한국전통의 목조건축의 형태를 현대화하거나 한국적 조형성을 추구하였고, 특히 휴먼스케일, 공간의 시퀀스, 작품의 주제적 개념을 한국적 이미지에서 찾으려고 한 점 등은, 청구대 재직시에 연구했던 고건축의 학문적 밑바탕이 깔려 있어서가 아닐까 싶고, 또 그것이 선생님의 건축활동과 자신의 건축언어 탐구에 많은 영향을 끼쳤으리라 짐작된다.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말씀은 한자루의 연필로 최소 6가지의 선을 표현할 줄 알아야 하고, 서울, 부산을 두 번 왕복할 만큼의 선을 그어 본 후에야 건축을 어렵듯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던 그 말씀이 세월이 지난 지금에 와서야 가슴에 와 닿는다.-(후략)

상기의 인물들 이외에도 김인호의 건축인생에 관한 증언자는 상당수에 달할 것으로 알고 있으나, 그들에게 미처 취재의 선이 닿지 못한 아쉬움이 너무도 크다할 것이다.(계속)